

리빙

꽃향승이 없었더니 식탁에 봄이 앉았네

'컬러푸드' 놓고 양초로 분위기... 산뜻한 봄 식탁



봄맞이를 식탁에서 시작해보자. 식탁보와 그릇을 산뜻한 색상으로 바꾼다거나 꽃만 얹어줘도 식탁이 살아난다.

/위직림기자 jwvi@kwangju.co.kr



이제 슬슬 봄을 준비할 때다. 시장이나 마트의 채소 코너에는 벌써 봄나들이 주부들의 코와 눈을 유혹하고 있다. 봄나들의 신선함을 식탁으로 옮겨보자. 간단한 테이블 장식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음식에 없는 곱めの 색깔을 맞춰주면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이왕이면 다홍치마'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다. 아침은 출근과 등교로 허둥지둥, 점심은 각자 해결이 일반적인 가정의 식사 모습이라면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저녁 식사 한 끼라도 그럴 듯하게 차려보는 건 어떨까.

푸드스타일리스트 이성희(에스더원요리학원장·사진 왼쪽)씨는 "가족들과도 종종 격식에 맞게 테이블을 차리다 보면 손님을 맞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며 "값비싼 소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품격 있는 식탁을 꾸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도움을 받아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저녁 상을 꾸려보자.

▲포인트를 줘라=식탁 위에 조그만 병을 놓고 꽃 향승이란 꽃이 들어있는 꽃병을 꽂아준다. "웬 꽃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된다면 보너스다. 식탁에 놓기 위해 굳이 꽃병을 갈 필요도 없이 단 향승이만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 대신 향기는 너무 세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양초 역시 분위기를 살리는 데 제격이다. 테이블을 가로질러 깔아주는 테이블 클로스(table cloth)와 촛대, 꽃의 색깔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다. 촛대나 꽃의 높이는 사람이 앉았을 때의 턱높이 정도가 알맞다. 꽃이 싫다면 과일이나 돌, 조개류 등을 장식용 소품으로 사용해도 좋다.

▲그릇도 인테리에 소품=봄을 앞두고 있는 요즘 같은 봄맞이 나뭇잎이 그려진 그릇을 선택해 전체 식탁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릇에 음식을 담을 때는 조금씩만 담아야 그릇에 그려진 무늬가 돋보인다. 그릇 색

상도 식탁보나 테이블 클로스의 색과 어울리는 색으로 선택해야 한다.

밥그릇의 색은 너무 강렬하지 않은 흰색 또는 단순한 패턴이 좋다. 그릇, 밥그릇, 식탁보 등 식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 외의 것들이 너무 강한 색을 띠고 있을 경우 음식의 색을 죽이는 역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고가의 그릇이나 식탁보가 아니어도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화려한 식사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컬러푸드로 식욕 돋워라=버섯을 채썬 우운 것을 음식과 비슷한 색의 그릇에 놓는다면 웬지 착착해 보인다. 그럴 때 그릇에 솔잎처럼 버섯과 다른 색의 음식 재료를 깔아준다. 전복집과 같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음식은 고무나무 이파리를 뜯어서 깔아두면 훨씬 더 음식이 돋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계란 옷을 입혀 대개 노란색을 띠게 되는 부침개 종류에는 녹차 가루를 이용한 감태전을 함께 두는 것도 보기에 좋다. 노랑과 빨강, 녹색을 띠는 파프리카는 맛내기 좋은 음식 아이템. 잘게 썬 파프리카를 색깔별로 따로 넣고 볶은 밥을 같은 색 파프리카에 담은 밥은 볶음밥이 된다. 채썬 파프리카를 음식 위에 얹어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도움말=이성희·에스더원요리학원장>



계절별 식탁 꾸미기

#봄



산뜻함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는 것만으로 입안의 침을 모으는 레몬이나 라임과 같은 과일을 식탁에 담아 두면 좋다. 봄에 맑은 입을 맛을 되살리는 기능도 한다. 꽃을 생각하고 있다면 소박한 봄꽃들이 좋다. 테이블 클로스나 밥그릇은 봄을 만끽할 수 있는 화려한 색이 좋다. 과감한 스트라이프나 체크 패턴도 생동감을 살리는 데 좋다.

#여름



여름철에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유리 그릇이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고정관념을 조금만 버리고 과감한 원색과 디자인의 소품들을 사용해봐라. 지치기 쉬운 여름 날씨에 자극이 될 수 있다. 대신 과감한 색이나 디자인의 그릇은 큰 점서 하나 정도에 그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테이블 클로스가 답답해보인다면 마 소재의 천을 이용한다.

#가을



넉넉하고 여유있는 분위기가 어울린다. 주로 와인색이나 브라운 계열의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한 베이지의 테이블 클로스에 브라운 계열의 밥그릇을 깔아주면 잘 어울린다. 가을을 상징할 수 있는 곡식이나 과일을 식탁에 올려 풍성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그만 열매가 달린 나뭇가지만 얹어줘도 분위기가 산다.

#겨울



겨울철 식탁 분위기의 핵심은 따뜻한 포근한 느낌. 목가적인 분위기의 두꺼운 소재 또는 누비 처리가 된 테이블 클로스 등 겨울 연출할 수 있다.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빨간색이나 보라, 금색 등을 이용하면 적절하게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토속적인 용기나 도기를 사용하는 것도 겨울철과 잘 어울린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다운다운 물류유통점' (Down Down Wholesale) featuring various products like '수정미' (polished rice), '큐원' (Kyuwon), and '설날선물세트' (New Year gift set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C타워(주)' (LC Tower Co.) listing properties in Cheonan and other area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Ilga Gongin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in various location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민음공인중개사' (Minum Gongin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in Cheonan and other area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동부부동산(주)' (Dongbu Real Estate Co.) listing properties in various location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토우드공인중개사' (Toudo Gongin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in various location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다우공인중개사' (Dau Gongin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in various location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Real Estate Auction Specialist) listing various auction services and properties.